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마가복음 40:1-11]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2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 세레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6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7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후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선지자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전파하는 자,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1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라기 3:1).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40:3). 이사야는 오실 주님께 관해 예언하였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언약의 하나님.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3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복음 1:23). 그 응답으로 모든 유대의 변방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민족이 부흥으로 무르익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요한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인지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조차도 회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마음과 정신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회개해야만 합니까? 우리 삶을 어지럽히는 영적인 찌꺼기를 깨끗이 치워냅시다. 세례 요한은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을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가까워짐에 따라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올 한해 얼마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살았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그 분을 주님으로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불신자 친구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의 길은 곧고 길은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 분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일들을 흔쾌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 만날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죄 사함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그분의 길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들 앞에 가져다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요한과 같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순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예수님과 비교하면 세례요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의 신발 끈을 풀어드리는 비천한 종에도 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살아갈 시간들을 약속했습니다. "3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

니" (이사야 44:3).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26). 우리는 구원을 위해 회개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전한 말 이상의 더 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요한이 전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고 믿으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구원자께서 오고 계십니다. 그 분은 당신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까?